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심볼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P:010)2956-9191 어2: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64호 2013년 3월 7일 목요일

한기총, 제94주년 3 · 1절 기념 민족대회 개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선언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라!, WCC 부산총회 개최를 취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달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순복음강남교회당(최명우 목사)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4주년 3.1절 기념 민족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이 담긴 3.1운동을 되새기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제2의 부흥과 도약을 바라는 염원이 가득했다.

한기총 총무 최명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3.1절 기념 민족대회 기념예배에서는 하태초 장로(공동회장)의 기도와 정진성 목사(공동회장)의 성경봉독과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에스겔 36장 26-28절을 본문으로 "새 마음의 혁명"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홍 대표회장은 "일제에 의해 짓밟힌 이 나라 이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3.1운동이었다"며 "3.1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을 정도로 당시 기독교는 민족의 자주 독립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순수한 복음의 신앙과 민족을 사랑한 열정을 품어 제2의 3.1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홍재철 대표회장은 "제 2의 3.1운동이란 새 마음 운동"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념과 갈등을 넘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자"고 선포했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민족의 역사는 다시 한 번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며 말했다.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축사에서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94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다"며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마음을 합쳐 예수 중심으로 힘 있게 전진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날 진택중 목사(공동회장)가 헌금기도를, "WCC 부산 총회 개최 취소를 위하여" 이승렬 목사(공동회장), "북핵 폐기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조성훈 목사(공동회장),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윤종관 목사(공동회장), "독도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충진 목사(부회장)가 특별 기도를, 조경대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3.1절 기념 민족대회는 이강평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애국가 제창과 김도현 장로(성우)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이만신 목사(증경회장)와 오관석 목사(명예회장)의 격려사, 엄신형 목사(증경회장)의 축사,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임형진 교수(경희대 교수), 정근모 박사(제12,15대 과학기술처 장관)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또한 이날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선언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라!", "WCC 부산총회 개최를 취소하라!"는 구호제창에 이어 지덕 목사(증경회장)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합창하고, 윤덕남 목사(부총무)의 광고를 끝으로 폐회됐다.

"제2의 3 · 1운동을 일으키자!"

한일기독의원연맹-KD코리안디아코니아, 동아시아 평화 위한 기도회 개최



한일기독의원연맹(대표회장 김영진 장로)과 KD코리안디아코니아(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KD)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새에덴교회 본당에서 '일본군 위안부?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김명규 장로((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김영진 장로(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가 기념사를, 조용기 목사(KD코리안디아코니아 상임고문)가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자!'(갈5: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명규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를 잊지 않고 일제에 의해 고통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원폭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말살정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이 됐던 것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덴마크 그룬트비히 목사가 일으켰던 운동이 당시 실의와 절망에 빠졌던 덴마크를 살려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룬트비히 목사는 당시 덴마크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있던 부정적인 언어습관을 고치기에 힘썼다."고 말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또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의 살 길은 제2의 3.1운동이다"고 말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사람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고 강조했다.

김삼환 목사는 축사를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위안부와 원폭피해자들과 같은 아픔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진 장로의 기념사, 손인웅 목사(KD 법인이사장)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황우여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원폭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원폭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사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

북한은 삶이 어렵고 말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생활상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핵실험을 자꾸 해대는데 한번의 핵실험으로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의 성공에 이바지한 1만1592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에게 표창했다고한다.이번의 핵실험은 지하 핵실험으로 밖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미국도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사실이지 그 여파는 2-3년 후에 북한에 재앙적 괴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핵에 대한 재앙적 괴질은 핵의 여파로 인한 토양과 함께 공기와 각종질병으로 오랜 세월동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불쌍하기 그지 없는데 핵실험을 통한 주변국들에게 엄포와 강성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한 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그야 말로 가관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정령에서 핵실험에 공로를 세운 100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했다.

오래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우리도 핵5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여 미국에게 찍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그냥 흘려 버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 있다. 미친 개 보다 더 미친듯 하는 저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인도처럼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핵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북한 뿐 아니라 일본을 보더라도 독도 문제를 두고 독도의 날을 정하여 거의 국가적 행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핵보유는 북한 만을 겨냥 할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일본은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맥아더 원수를 통하여 영원히 국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일본 서부 항공자위대 기지에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조기경보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는 파장 2.5㎝ 정도인 X밴드 주파수를 이용, 4천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미군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

일본 방위성의 고위 당국자는 미군 레이더의 일본 배치 계획과 관련,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빚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위치상 일본이나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강력한 영도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필요로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만 필요한 것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젼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 - 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 - 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 - 16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 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 - 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 - 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 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8 - 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 - 28 비젼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3년 4월
1 - 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 - 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5 - 16 정기노회
22 -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 - 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6 - 8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 - 15 일신제일교회(천창대 목사)
20 - 22 인천은혜교회(백덕기 목사)
27 - 31 선교지방문

2013년 6월
3 - 5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0 - 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7 -19 성산교회(이기재 목사)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 - 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20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 (예복교회 : 담임 소진우 목사)
22-24 은광교회(추영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5 - 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 - 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 - 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 - 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국교회와 탈북자들, 3·1정신으로 평화통일 염원

탈북자도 기념예배… "북한 주민도 탑골공원 역사 알아"

3·1절 94주년을 맞아 1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 피켓을 두른 1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전통음식연구원 이애란(49) 원장의 지시에 따라 줄지어 섰다. 결연한 표정들이다. 잠시 목을 가다듬은 이 원장이 "우리는 북한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다.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거리예배를 드리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의 3·1절 기념예배가 시작되고,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하나둘 늘었다. '평화통일을 위해 탈북자들이 앞장서자'는 구호를 외칠 때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할 때는 힘이 넘쳤다. 이 원장은 "북한 사람들도 3·1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을 잘 안다"면서 "역사적인 이곳에서 탈북자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니 감개무량하다. 하루 속히 남북의 평화통일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목이 메어진다.



국민연합은 지난해 2월 23일 창립됐다. '탈북여성 국내 박사 1호'인 이 원장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기 위해 금식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한 게 계기가 됐다. 탈북자들은 이날까지 373일째 중국 대사관 앞과 탑골공원 등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겸 금식기도를 드리고 있다. 1인 시위 겸 금식기도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시끄럽다고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도 있었고,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땐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시위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의 안녕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소리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그치지 않았다.

이날 거리예배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으로 끝났다. 예배가 계속되는 동안 지나가던 한 시민은 이들 앞에서 기도하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탈북자는 "탈북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방관하느냐"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합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북한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할 예정이다.

복음으로 세계적 인물 키우고 3·1운동의 기상 자손 대대로

94주년 3·1절 나라사랑 연합기도회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철한 목사) 주최 제94주년 3.1절 나라사랑 연합기도회에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 이한수 목사(젊은교회)는 "이렇게 살자"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지도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면 망해가는 민족을 살린다"면서 "3.1운동 당시 전인구의 1%도 안되는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에 동참한 33이 중 절반을 넘어선 것은 복음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3·1운동의 멋진 기상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대대에 미치도록 해야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면서 "36년간 우리를 지배한 일본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민족이 되도록하자"고 말했다.

1일 오후 9시 수원삼일장로교회(송종완 목사)에서 열린 예배는 준비위원장 송종완 목사의 사회로 진행, 회계 이부호 목사(수원새빛장로교회)의 기도, 부서기 권남호 목사(하사랑교회)의 "신명기 28:1~14" 성경봉독, 이한수 목사의 설교 후에 공동기도시간을 가졌다.

"3.1정신 계승과 남북통일을 위하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수원시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각각 증경회장 국응석 목사(순복음중앙교회)와 공동회장 임영섭 목사(수원은혜장로교회), 공동회장 이인기 목사(수원화산장로교회)가 기도했다.



서기 김환근 목사(수원기독호스피스회)의 독립선언서 낭독 후에 대표회장 김철한 목사(오목천감리교회)는 회장 인사를 통해 "일제 36년간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가 더 잘될 것이며 하나님이 일본을 치리하실 것이다.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원지역 전 교회가 하나될 때 영향력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영통구 임종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독립 선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복이후 60년간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이룰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우리들의 부모님 처럼, 독립 선열들처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장 김철한 목사가 국가유공자(홍완기 김호식 김주백 권애기 박근부)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계속해서 사무총장 이관호 목사(영화나사렛성결교회)의 광고 및 내빈소개, 삼일절노해, 공동회장 이기현 목사(남수원침례교회)의 만세삼창, 증경회장 이정찬 목사(수원제일감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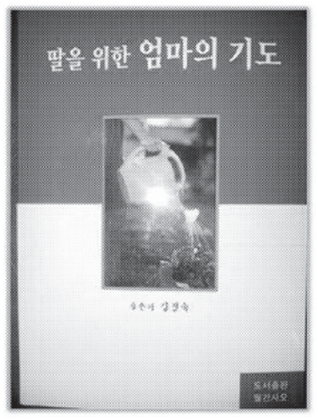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신앙지침서!

김경숙 사모 '딸을 위한 엄마의 기도' 출간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신앙지침서인 '딸을 위한 엄마의 기도'(도서출판 월간사모, 저자 김경숙 사모)가 최근 출간됐다.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윤리적 가치관의 경계가 희미해진 요즘, 성경과는 다른 온갖 것들이 솟쳐나와 제각기 배를 내미는 세상에서 시집가는 딸을 위한 신앙의 기준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다.

오래전부터 기도를 통해 딸에게 말했던, 그리고 딸을 위해 해주려고 했던 30여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은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책이기도 하다.



저자 김경숙 사모는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 믿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늘 훈계로 가르치려 적어 놓은 글의 세월이 25년이다"며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결혼하면 작은 책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글들이 딸을 위해 책으로 만들어지니 참 좋다"고 밝혔다.

이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그때마다 적어 놓은 글, 여식이기에 더 지독히도 가르쳤고 교육하였지만 날마다 새롭게 알아지는 그 모든 것을 이르기에는 늘 역부족이었다"며 "그래서 작은 메모지에 한 줄씩 적어 보았던 글을 딸이 결혼할 즈음에 출간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자식들을 위한 마음은 동일하다"며 "이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월간사모 김옥자 선임기자는 추천사를 통해 "에덴동산놀이를 통해 보여주는 부부의 하나 된 신앙의 모습과 오직 말씀만을 양식 삼고 네 식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신앙의 도리를 좇아 사는 당당한 삶의 결속이 참으로 귀하다"고 전했다.

이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자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거센 몸부림을 통해 인생의 근본인 부모님과 세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부, 부모자식, 형제, 이웃 간에 행할 신앙의 방편을 그녀의 마딘 삶에 담아 냈다"고 추천했다.

또한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부녀교육서로 지은 내훈처럼, 한몸된 신앙으로 계대를 잇는 신앙행전인 '엄마의 기도'는 가정교육이 실종되고 가정해체 현상이 극심해진 요즘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다"며 "한 줄 한줄 꼼꼼히 읽어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구국기도회 성황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서임중)는 17일 오후 7시 30분 소망교회에서 성시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역 복음화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불안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남북평화통일 등을 간절히 기도했다.

서임중 목사는 '통감의 지혜'란 주제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를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때 소자 곧 작은 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지금 바로 도와라"고 말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과 아들의 반역으로 쫓긴 신세가 된 다윗, 이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천은 역사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를 거울삼아 현실에 적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보다 낮다고 여겨지면 질투를 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교만해 진다"며 "작은 자를 섬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득섭(늘사랑교회) 목사(나라와 민족을 위해)와 신성환(목양테마교회) 목사(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 손춘식 집사(사랑의 집 100채 수리)는 특별기도를 했다.

김영호(구룡포침례중앙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기도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회였다"며 "한국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후 불안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시화운동본부 서임중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 요 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충남 공주시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항표 목사 (한경총 총무)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86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2625-0982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 02)414-1191 H.P 011)775-5154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목사 : 김농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알파과정	오후6(주일)	주일학교	오전 9:2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WI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http://www.반석교회.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H.P 011)9027-9712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인천)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웨신총회, 개혁복음교단과 통합위한 상견례



예장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 예장개혁복음총회(총회장 곽태호 목사)양 교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동 어울림에서 통합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이날 웨신총회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교세확장전권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웨신측 총무 신언창 목사는 통합경위를 설명하고, 허성인 목사(웨신 부총회장)의 기도가 있은 후 웨신측은 총회장 이재갑 목사, 교세확장전권위원회 위원장 장창윤 목사(부총회장), 허성인 목사(부총회장), 하종호 목사, 정성택 목사,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직전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유윤주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가, 개혁복음총회측은 총회장 곽태호 목사, 부총회장 진경택 목사, 서기 곽시천 목사, 김경석 목사(총회본부원장), 학보 학장 김현옥 목사 등이 양측 교세확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혁복음총회 곽태호 총회장은 오는 4월 각 노회에서 웨신총회와의 통합을 전제로 추인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양측은 제2차 통합실무협의회에서 통합을 원칙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상견례 및 간담회를 마쳤다.

웨신총회인준 서울찬양신학교 학위수여식



예장(웨신)총회 인준 서울찬양신학연구원(대학원장 장창윤 박사)에서 제8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교학처장 정태종 박사의 인도로 개회사를 시작으로 율동신학장 유모현 박사의 기도, 학생처장 이순옥 박사가 창세기 18:14절을 봉독하고 정원도 전도사(조교수회장)가 찬양을, 웨스트민스터 율동신학교 선교단의 워십이 있은 후 찬양신학 대학원장 장창윤 목사는"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장학생을 위한 특별헌금에서 정태종 박사가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학위 수여식에서 찬양치유자격 및 학위증서 수여에 총재 장창윤 박사, 신학졸업 및 학위증서 수여에 총회신학 이사장 조강수 박사, 찬양신학이사장 정민철 박사, 율동신학장 유모현 박사 등이 전달했다.

또한 임명 및 시상에서는 총재 대학원장, 대표회장 여성회장, 총회신학이사장 찬양신학장 율동신학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회장 이순옥, 여성사무총장 차에스더, 교수회장 송정숙, 총학생회장 최인순 등이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찬양신학 이사장 정민철 박사가 축사를, 총회신학 이사장 조강수 박사의 훈사가 있은 후 정태종 박사의 광고 및 인사에 이어 대학원장 장창윤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수상자는 총재상: 최인순, 설미경, 대학원장상: 전예두, 모범상: 서상윤, 대표회장상: 심선택, 여성회장상: 김순애, 최회신학이사장상: 김형숙, 찬양신학장상: 최영애, 율동신학장상: 김혜영, 김선도 등이다.

또한 졸업자는 총회신학: 최인순, 설미경, 차분조, 학부: 전예두, 찬양신학 졸업: 이훈규, 차분조, 학부: 전예두, 율동신학: 김혜영, 김선도 등이다.

예장(정통)총회 총회신학 및 신학연구원 졸업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총회신학 제43회, 신학연구원 27회 졸업식을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 2층 루이시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교무처장 김춘태 박사의 사회로, 학생처장 김연숙 박사의 기도, 사회자가 갈라디아 2장 8-10절을 봉독하고, 학장 양성국 박사는 '기둥이 할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학장은'이 시대에 기둥같이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 했다.

이어 졸업식순에 따라 학장 양박사는 신학부 양소연 전도사 외 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신학연구원장 양정식 박사는 신학연구원 조옥행 강도사를 비롯 1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사장 표창은 조옥행 강도사가, 연구원장 표창은 김연수 목사가, 신학부에는 박미향 전도사가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사회자가 학교연혁을 보고한 후 이사장 양정섭 박사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신학부: 양소연, 박미향, 장자실, 이현재 이며, 신학연구원: 조옥행, 최현신, 김연수, 김정미, 박순근, 박금옥, 양은애, 송을심, 주종심, 황길서, 김항범, 이정윤, 홍선화, 최분순 등이다.

제 94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연합하여, 제94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2월 28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가입교단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예장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의 성경봉독(느헤미야 1:1-5절)과,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정당한 애국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잃고 향방을 잃은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낙담되어 있을 때, 이들을 일깨우고 일으켜 세우는데 단결하고 잃어버린 조국강토를 되찾는데, 목숨을 걸고 일어선 선봉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애국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나라를 잃은 일이 없어야 하며, 이 나라가 구원받도록 전도하자고 했다.

특별기도로"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예장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한목사,"국가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장로회영성총회 총회장 김정한 목사,"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연합1총회 총회장 이상복,"일본 회개촉구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예장합동예합총회 정 헌목사 등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예장영성총회 증경총회장 양인천 목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예장개혁총회 강희준 목사의 만세삼창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일기독의원연맹-KD코리안디아코니아, 동아시아 평화 위한 기도회 개최

1면에서 이어짐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태효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들의 신고를 받아 7대 과제를 선정해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 정부에 제출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명성교회와 새에덴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정순 회장(원폭피해자2세환우회)은 "17대, 18대 국회에서 원폭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19대에서는 꼭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

이날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이어 최희범 목사(KD 총무)의 선언문 낭독 후 장상 목사(한일기독의원연맹 상임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교계기자 탁구대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혹한의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봄 내음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몸도 활짝 펴고, 한국교회 언론인들의 단합과 친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 교계기자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취재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나마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한국교회 언론 발전에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푸짐한 상품과 산해진미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들 꼭 참석해서 유감없는 실력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 장 소 : 한기총 세미나실
◇ 참가자격 : 한국 교계언론 소속기자
◇ 참 가 비 : 없음
◇ 경기방식 : 개인전, 복식전
개인전 : 조별 풀리그(11점 3세트 경기) -> 상/하위 2차 토너먼트 진행
복식전 : 당일 추첨 조편성 -> 토너먼트 진행
◇ 시 상 : 개인전·단체전 상위(승자전) 1.2.3등 시상
◇ 행운권추첨 : 명품 및 가전제품 제공
※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및 기념품, 사우나 제공
※ 원활한 경기운영과 점심식사, 선물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마감 : 2013년 3월 15일(금) 오후5시
◇ 연락처 : 02)741-2782(한기총 홍보담당)



주최 CCK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 CJK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윤범석)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호 ☎02)741-2782~5 FAX741-2786

최요한 목사 'CTS기독교TV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요한 목사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20일 CTS기독교TV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요한 목사(본명 최의흠, 남서울비전교회)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윤익세 목사(칼빈대 교수), 김승호 목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인 목사는 'CTS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 했다'는 허위내용으로 2009년 8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으로 2011년 8월 10일 '명혜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CTS는 "교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에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만큼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경목총회 고양시 화정교회에서 임원회 가져

존재가치와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의 기도

사단법인 한국경목총회(총회장 허 식 목사)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소재 화정충현교회(담임목사 이효은)에서 지난 2월 28일(금) 오전 11시 임원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항표(한경총 사무총장)목사의 인도로 총회장 허 식 목사(한경총 총회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김창룡(한경총 부회장)목사가 기도를, 양미상 목사(한경총 서기)가 성경봉독(로마서 14:7~8절)을, 우슬초 목사(경목위원)가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박동호 목사(한기보협 상임회장)는"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박동호 목사는 WCC 부산대회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종교다원화기반을 두고 점점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WCC 단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지적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부끄러워 할 것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리더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이효은 목사(한경총 감사,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총재)의 환영사가 있었다. 아울러 박근혜대통령과 새정부를 위하여 박양우 목사(한경총 부서기), 경찰선교와 김기용 경찰청장과 13만 경찰관들을 위하여 정기남 목사(한경총 언론대표 및 이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한국경목총회를 위하여 조영기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어서 우슬초 목사의 찬양으로 헌금시간을 갖고 축복기도를 한 후 홍항표 목사(본회 사무총장)의 광고 후 박한규 목사(한경총 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장 허 식 목사

한편 총회장 허 식 목사의 진행으로 2부 임원회가 임요한 목사(경목위원)의 기도로 개최되어 오는 정기총회를 위하여 감사 이효은 목사를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한국경목총회의 발전과 경찰선교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임원회 및 기도회를 마쳤다.

JTN방송 지저스타임즈 @ 박종만 기자


한국경목총회 임원회

교계 7개 단체연합, W.C.C 10차 총회 반대 촉구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기독교회에 미칠 나쁜 영향을 우려하여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반대하는 집회 및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WCC의 정체를 알리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일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반면에 WCC 제10차 총회를 준비하는 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반대를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나 NCC실행위원회에서 이를 문제 산고 나서므로 급기야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총무가 사과문과 아울러 공동선언문 파기를 선언하고 사임하였으며 한기총은 WCC총회 반대로 급선회하는 사태로 이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많은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서 기독교단의 교단연합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각 연합기관은 나름대로 WCC의 정체를 알리고 10차 총회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여 왔으나 이제는 힘을 결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7개의 단체 대표자들과 임원들은 지난 15일 은혜와진리교회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의 단체가 한국교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경우를 위하여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라는 명칭아래 신속히 모여 논의하고 결의하며 공동보조를 취할 것도 결의 했다. 각 연합회의 대표는 모두 공동대표가 되고 회의 시 임시 의장을 정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7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이선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조용목 목사

홍재철 목사 개신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2012학년도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



2012학년도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28일(목) 종암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이사장 조경대 박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박송수 박사(개혁교단 부총회장)가 기도를, 총회장 정학채 목사(개혁교단)는"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교학처장 김구원 교수의 사회로 2부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어 학사보고와 학위수여청원이 있었으며, 조성헌 총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철학박사, 신학석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아울러 목회연수심화과정, 목회신학연구과정, 총회목회자계속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또한 상장수여 순에서 이사장상에 이종욱 학우, 총장상에 김재선 학우, 총회장에 난살마 학우, 개혁공보사장상에 백영강 학우, 총동문회상에 이희원 학우, 전국장로연합회장상에 이광수 학우, 전국여전도회연합회장상에 박경애 학우 등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이어 정은주 목사가 축사를, 김동원 목사의 격려사와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한편 이날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홍재철 목사(한기총대표회장, 경서교회 당회장)는"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을 위하여 뛰어달라는 상 같다"며"저는 목회시작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의 세월동안 숫한 고난과 역경의 터널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받은 명예철학박사 학위는 화합과 공생의 차원에서 받은 것 같다. 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를 심사하는 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 분	시 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쉴만한물가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2013년 1학기 수강생모집

김동기 목사
▶명품속독 지도사 과정◀
수강신청문의: 010-9119-7661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 부흥 사관학교

교장 김명옥 목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3:00
◈ 내용 : 바이블시티 맥 잡기, 부흥사 연수
◈ 장소 : 할렐루야 교회 (http://cafe.naver.com/swhc)
☎ 문의 : 010-7707-4319, 010-2080-0651
교재 및 식사 무료 / 회비 없음

대표 곽영민 목사
서울 양천구 신월1동148-19(2층) ☎ 010-7707-4319, 010-2080-0651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교계 기자 탁구대회

제1회 탁구대회는 3월 21일 한기총 세미나실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교계 기자 탁구대회가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언론인들의 단합과 친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갖는 이번 탁구대회는 한국교회 언론 발전에도 고무적일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서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윤범석 국장)에서 주관하는 이번 탁구대회는 한국 교계언론 소속기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개인전과 복식전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개인전의 경우 조별 풀리그(11점 3세트)로 상·하위 2차 토너먼트로, 복식전은 당일 추첨을 통해 조편성을 하며,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우승자들에게는 푸짐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 진행되는데 힘쓰고 있다.

참가신청 마감은 3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및 기념품과 사우나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741-2782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강 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즉 사찰들이 지금까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국립공원 산행을 하거나 도로를 통과할 때, 사찰 땅을 지나친다 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되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사찰들이 불법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강제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3일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윤태식 판사)에서도 서 모 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와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국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22곳에 이르고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한려해상의 보리암,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내장산의 내장사, 백양사, 가야산의 해인사, 오대산의 월정사, 주왕산의 대전사, 치악산의 구룡사, 소백산의 희방사, 월출산의 도갑사, 변산반도의 내소사 등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찰들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는 한 해에 300억 원이 넘는다. 조계종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만 해도 무려 34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대도 불교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가예산을 별도로 받고 있다. 또 지자체들로부터도 각종 명목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하다.

사찰 탐방객이 아닌, 단순히 등산이나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불교계가 일괄적으로 문화재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찰의 경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사찰들이 재산을 취득한 경과를 알고 보면 반민족적인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리는 것은, 법 이전에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당장 시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도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칼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K)는 4단(天佛母僧)종교인가?

아니! '나무아미타불, 아멘'으로 기도를 하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 기도자료실에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공동기도문!'이라는 것이, 일 년 이상 올라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여성들이 생명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함께 모이고, 기독교쪽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하느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 소태산대종사님"에게 드려지고, 마지막에"나무아미 타불, 아멘"으로 끝맺고 있다. 한다.

이 기도문 작성자는 기독교의 여자 목사이고 기독교학교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 겸임교수 구미정 씨로 소개 되고 있다.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에게"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 간구 하며"나무아미타불 아멘"으로 드려진 기도문을 한국기독교를 대표한다. 는 kNCCK 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서, 오랜 세월 관리하고 있었다는 보도 내용들이다. 그런데 그를 고용 또는 임명한 숭실대와 서울 복음교회는 이에 대해 금년 2010년도 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kNCCK는 확실히 이상하게 보인다. 나무아미타불아멘"이니,"부엉이 바위의 피 자국에서 예수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본다." 느니 "봉하 마을에 흘린 피는 예수의 보혈과 같다"느니 하면서 "노아무개 대통령은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하는 운동 등 이상한 흐름에 무관치 않다는 의문이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들이 그 말이다. 여론이 빗발치자 급기야 kNCCK책임자들은 자기들의 주장 작품이 아니라. 해명하지만 그 흐름의 의구심을 풀 수 가없다. 그럼 왜? 위 4대 종파모임의 기도 내용들을 일 년 이상 홈페이지에 뒀었느냐 하는 지적이 그 말이다. 도대체 kNCCK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인가?, 혼합종교로 4단 종파 (天佛母僧)인가? 하기야 교회도 별별 희한한 생각을 가진 목사들도 있으니까! 목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던 그것은 자기 신앙대로 할 수는 있을 지 모르나"나무아미타불 아멘"은 무엇이며, 그 기 도문을 kNCCK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관리한 이유가 또 무엇인가? 아무리 4대종교의 여성들이 모여 한 행사의 기도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목사는 목사답게 기도하고, 승려는 승려답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하느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4 단을 한입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모두가하나'라는 사상에서 비롯됨이 분명하다. 그들은"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표적인 혼합주의 일뿐, 소위종교 다원주의마저도 못된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따라, 기독교인답게 살고, 불교인은 석가의 가르침 따라, 불교인답게 살면서, 인간다운 공동 삶의 선을 목표로 지향해가 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닌 자는 그 가치관이 야고보서 1장 6절~8절 말씀처럼"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같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런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성경말씀은 경고하여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기독교지도자들과 기독교계 신문들! 방송들 한국기독교 교단들 중에는 대다수가 침묵 외면하고 관심 없이 지나는 이유가 도대체 웬 일일까? 하기야 요즘 한국교계에는 인본주의, 영웅주의, 파벌이기주의, 교권주의, 황금만능주의, 기복주의가 판치려는 중병 걸린 증상들이 아닐까? 느껴져서! 떨리고 소름까지 돋으려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찌 할까? 이때! 지금! 우리 모두 성령님의 임재 도우심을 입어, 성경말씀 대로,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사상 대로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하고, 바로 개혁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 소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함을 통감하고 공동대책으로 이를 시급히 꼭 개혁극복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수도권 은목교회 박한규 목사

찬송가공회 "21세기찬송가 폐기, 새 찬송가 사용해야"

비법인 공회 "새 찬송가 제작 완료, 교단들과 협의할 것"

지난 해 각 교단 총회가 새 찬송가 사용을 반대 혹은 유보하면서 찬송가 논의가 잠잠해져 있던 중, 최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이 나면서 찬송가 사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하 재단)'가 지난 달 29일 충남도청의 법인허가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는 4월 초에는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단은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또다시 충청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교단들이 모여 구성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27일 오후 2시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회의 법인화로 인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21세기찬송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찬송가 사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회는 "21세기 찬송가의 경우, 가사 대리집필, 곡의 함량 미달, 추문 인사들의 가사 게재도 문제지만 저작권료 사용이 큰 문제"라며 "외국 찬송가에 거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고 국내 작곡가들도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태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저작권료는 찬송가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신도들이 두고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찬송가는 결국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로 새로운 찬송가의 발간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공회는 새 찬송가 제작을 마쳤고, 시제품을 각 교단 총회에 보냈지만 새 찬송가 사용 안건을 논의한 교단들은 사용 거부 혹은 유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경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창간 축

"본 단체는 지저스타임즈 자매 단체로서 기독 언론의 사명과 한국교회와 기도원 부흥에 일조하는 건전한 초교파 부흥사 단체입니다"

시대의 사명 감당할 부흥사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상임회장 홍항표 목사 경목총회



회원명단 이효은 목사, 정기남 목사, 정기환 목사, 소진우 목사, 곽영민 목사, 김동기 목사, 박수영 목사, 정대성 목사, 박양우 목사, 유윤주 목사, 주은총 목사, 송미순 목사, 전진성 목사, 정성준 목사, 여현관 목사, 강신숙 목사, 이기학 목사, 윤광석 목사, 김명옥 목사. 한춘희 목사, 임요한 목사.

지저스타임즈(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웹하드: I.D-cpjkr, P.W-km1122

다니엘서 강해 (V)

다니엘서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시대인가? 주 재림 후의 천년왕국인가?

2장에서 뜨인 돌은 재림 예수, 하나님 나라는 재림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千年王國). (유대인에게는 메시야왕국임)

(4)뜨인 돌(45절)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은 영원히 설 것이다. 뜨인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신상을 쳐 멸하고 한 왕국을 세우는데, 유대인에게는 메시야 왕국이요,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다.

다니엘 2장의 뜨인 돌로 신상을 쳐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산에서 뜨인 돌, 곧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의 '산 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초림 하는 예수가 아니라 7년 환란 이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쳐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땅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쳐서 멸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을 직접 쳐서 멸한 다음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초림 하여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세우실 천년왕국이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야왕국이다.

(5)신상을 네 부분으로 구분 하는 견해와 모순점

혹자는 느브갓네살왕이 본 신상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금 머리의 첫째왕국(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둘째왕국(메대, 파사),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셋째왕국(헬라), 철 종아리에 철과 흙이 섞인 발을 붙여서 넷째 왕국(로마) 으로 보는 견해다. 철과 흙이 섞인 발에 있는 열 발가락은 로마의 열 황제로 본다. 그리고 신상을 쳐 멸한 뜨인 돌을 초림 예수로 보고, 하나님이 세우는 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초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로 본다.

※ 모순점

① 로마제국 두 철 종아리에 이어 10 발가락을 로마 10 황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AD.1453년에 있었다해야 한다(동로마 1453년亡, 서로마 476년亡).

② 신상의 신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보면 안 되고 정확히 다섯 부분으로 봐야한다. 신상을 네 부분으로 봐서 열 발가락 부분이 로마라 치면 예수님 승천 후에도 1453년까지 로마가 존재했으므로 모순된다.

③ 뜨인 돌을 초림예수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메시야왕국이 그들에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모순이다.

④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채움인데, 초림하신 예수그리스도는 현재 정사와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재림하여 세우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11:15).

⑤ 뜨인 돌이 쳐서 멸했는데 초림 예수님은 로마를 쳐서 멸하지 않았다.

⑥ 교회는 쳐서 멸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2장의 뜨인 돌은 재림 예수이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재림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千年王國)이다. (유대인에게는 메시야왕국임.)

① 10 발가락은 7장의 10뿔과 같으며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다(10개국 공동체 1국가 형태임).

② 주 재림 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하여 쳐 멸하시고 세우시는 천년왕국(千年王國) 이다.

(6)다니엘서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44절)

다니엘서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시대인가? 아니면 주 재림 후의 천년왕국인가? 다니엘서는 유대인,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여 계시하신 것이므로 유대인들이 늘 사모하는 다윗왕국의 회복인 메시야왕국이 그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상의 하나님 나라는 주 재림으로 세워지는 메시야왕국을 가리키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다.

오늘 날 다니엘서의 예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직전에 있을 환란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성취 되어야 할 예언으로 봐야한다. 70 이레 비밀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성취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될 남은 1 이레의 예언인가? 해석의 핵심 열쇠가 네 민족과 성을 위하여 70 이레를 정했다 했으니 70 이레가 마치면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게 된다. 메시야 즉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정사로 직접 통치하는 때이다.

따라서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야(초림 예수)가 왔다가 끊어지고 공백 기간이 있은 후에 남은 1 이레가 있다. 기록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교회, 은혜시대)를 의미하고, 남은 1 이레는 주 재림 직전의 7년 환난의 기간임을 분명히 해 준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상의 '하나님 나라'는 7년 환란 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울 나라이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15절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① 다니엘 2장의 뜨인 돌로 신상을 쳐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산에서 뜨인 돌, 곧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의 '산 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초림 하는 예수가 아니라 7년 환란 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 '쳐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땅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쳐서 멸한다고 말씀하셨다(계19장 11~21절).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을 직접 쳐서 멸한 다음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초림 하여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세우실 천년왕국이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야왕국이다.

②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시어 작은 뿔인 짐승은 심판받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 못에 던져지고 인자 같은 분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다.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③ 다니엘 9장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어 영원한 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70이레로 정해졌나니 69이레가 지나면 메시야가 잠시 왔다가 끊어질 것이요(초림 예수). 남은 1 이레의 중간에 그가(적그리스도가) 진멸될 때까지 가증함이 확산, 황폐케 되리라. 남은 한 이레는 7년 환란을 말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기간 동안 통치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때이다. 이 가증하고 황폐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이 곧 70이레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이후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메시야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의와 화해가 이루어진다. 즉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시대의 교회가 아닌 것은 영원한 의와 화해가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는 재림 후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이다.

④ 다니엘 11장과 12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아울러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있게 됨과 강물 위의 세마포 입으신 분(재림하실 예수님)의 맹세인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질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며 다니엘이 그 날들의 마지막에 '그의 땅'에 설 것이라. 이와 같이 다니엘서 2장부터 12장까지 흐르는 맥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바, 주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심판 멸망과 메시야왕국 건설의 일관 된 맥으로 계시된 것이다.

따라서 다니엘서 상의 '하나님 나라'가 주 재림 시(초림예수가 아님)에 유대인의 메시야 왕국건설에 두어져 계시하고 있고 이는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주 재림 시 세워지는 천년왕국이 곧 유대인의 메시야왕국이 된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 럼 퓨리탄 장로교회 목사 서 영웅(JTN방송 상임이사)



로만칼라

사랑은 진실하고 뜨거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과 진실속에 위선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질문하였다. 베드로는 반복적인 대답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드린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과 사랑의 확신을 심어 주신 것이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주님과의 동행속에서 순교했으며, 사도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독신으로 사도의 직분을 행하였다. 사도바울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의상이라 생각한다.

목회자가 가정에 얽매이고, 큰교회들은 자식에게 대를 이어 주려고 교회적으로 내분을 격고 있음은, 생존의 부와 안일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교단정치를 통해 명예를 앞세우고 대형 성전만을 위한다면, 우리안에 있는 양들은 누가 보살피겠는가!

지난 오월말로 자진 사퇴한 가톨릭 베네딕토 교황의 삶에 대해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교황의 진솔한 삶에 찬사를 보냈다. 가톨릭의 12억 신자들은 교황의 자진퇴임에 머리숙여 고별미사를 드렸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자진 사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권좌에서 물러 날줄 아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부가 되려면 엄격한 신학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신부의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사제서품을 받으면 목에 둥근 흰색의 로만칼라를 하게 된다. 성직자로서 독신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멍애인 것이다.

그들은 무소유속에서 사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로만칼라는 기름부움 받은자의 표시이다. 농부는 소의 코에 고삐를 끼우고 목에 멍애를 메우고 논,밭을 쟁기로 갈아 농사를 짓는다. 비육우는 고삐나 멍애를 메우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게 한후 도살 시키는 것이다. 많은 소 중에 농부의 손에 들어가야 주인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 소의 고삐나 멍애는 모두가 아픔과 고통인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질문하였다. 베드로는 반복적인 대답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목회자는 주인의 쓰임을 받는 소중하나 성직을 맡고, 좁은 길을 가야한다. 아픔과 고통을 참고 사명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속에서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고 건전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자의 제구는 지팡이 하나뿐이다. 말씀만 의지하는 신실한 목자는 환란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마치 달음질 하는 경주자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뛰는것과 같이, 많은 소유를 하고서는 협착한 길을 갈수 없는 것이다. 주님과의 동행속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한다. 주어진 멍애를 메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골고다의 좁은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다. 지난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혼탁한물에서 나온 사람들 같다. 누구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 명예와 재물앞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새정부의 각료 인사 모두가 청빈을 위한다면 로만칼라를 해야할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고 흠이 없는 각료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은 존경 할 것이다.

목회자들도 사회전반에 빛된 삶을 살아야하겠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국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불꺼진 상황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를 빙자하여, 간첩 및 좌파로서 국가 전복을 꾀한다면,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색출검거해야한다. 국내에 수많은 조직속에서 시위를 조장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을 철저히 감시하여, 철저한 안보의식을 국민모두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국법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발걸음을 내디딘 정부에 국민모두는 힘을 실어 주어 발전국가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새로이 출발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각료와 특히교계지도자들은 국가에서 위임한 직임을 충실히 지켜, 청빈한 로만 칼라를 마음에 새겨 가장 깨끗한 충복이 되기를 희망한다.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혜망원
예/배/시/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영락원예배 오전 9: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새벽기도회 월~목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 예배 | 시간 | 장소
주일 | 낮예배 | 1회 오전 7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낮예배 | 2회 오전 11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저녁예배 | 오후 7시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금요예배 | 저녁 9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새벽예배 | 오전 5시 | 3,4층 대 예배실
주일 | 청년부예배 | 오후 5시 | 5층 영산강홀
주일 | 대학부예배 | 오후 5시 | 5층 두란노홀
주일 | 유치부 |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 2층 새롬방
주일 | 유초등부 |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일 | 중등부 | 오전 9시 | 2층 영산강홀
주일 | 고등부 | 오전 11시 | 2층 영산강홀
주일 | 영어예배 | 오후 1시 30분 |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개신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살리는 신학과 살아있는 목회자와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정』 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학위과정 (월요반, 화,수요반, 토요반)
■학위과정 : 국내학사(신학, 사회복지학), 석사(신학, 목회학, 코칭학, 사회복지사) 박사(사회복지학, 코칭학, 목회학, 신학박사), 기타학위과정
■자세한 문의 : 담당 곽 동 훈 박사 (010-7405-9191)

김평호 목사
부흥성회
(회개+감사+응답+치유+축복+능력)
일자(년/월) | 일자(일) | 내 역
2013년 3월 | 4일-7일 11일-14일 18일-21일 | 열두광주리기도원 열매기도원 첫사랑교회
2013년 4월 | 8일-11일 15일-18일 | 열두광주리기도원(예수비전) 벧엘기도원
2013년 5월 | 6일-9일 13일-16일 | 열두광주리기도원 인천믿음교회
◎ 열두광주리기도원
◎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
◎ 한인족리방이법협회부총재
◎ 카리스부흥사회 부흥자
◎ 열두광주리기도원 : 매월첫주성회
◎ 선한목자부흥사회 회원영입
◎ 2013년부흥성회 집수중
경기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1-4
김평호 목사 010-8411-0191

하나님의 영감 성경계열, 하나님의 감동 성서계열

지난 호에 이어

ㅁ. 하나님(God)을 보좌(throne)라고 하였다(계20: 12).

(개역성경)계20: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개역개정성경)계20: 12; ,(바른성경)계20: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원어신약성경)계20: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곧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흠정역성경)계20: 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ㅂ. 하나님(God)을 그리스도(Christ)라고 하였다(롬 10:17, 롬 14:10, 엡 5:21, 골 3:15).

※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개 시켰다. (개역성경)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개역개정성경)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른성경)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원어신약성경)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흠정역성경)롬 10: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전혀 다르다.

사본의 단어가 전혀 다르다. 다수필사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토 베마티 투 크리스투, seat of Christ)이고 중립사본은 하나님의 심판대, 토 베마티 투 데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같은가? 아니다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신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담이 범죄 후에 쫓겨 났던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죄와 범법들과 불법들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자들이 에덴동산에 가서 1000년동안 10고을, 5고을, 1고을을 통치하는지 하는 상급을 심판하는 심판대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1차 사망후(영과 혼이 몸과 분리) 구원 받았던자들이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기문에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지옥과 사망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영벌)에 가는 심판 받는 것이므로 완전히 다르다. (개역성경)롬 14:10;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역개정성경)롬 14:10;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른성경)롬 14:10;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원어신약성경)롬 14:10;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고 (흠정역성경)롬 14:10;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 (원어신약성경, 흠정역, 직역성경)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계열 (개역성경, 개역개정판성경, 바른성경)

ㅅ. '하나님'(God)이라는 단어를 40회 이상 삭제하므로 하나님론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역성경에서 72,712곳을 고쳤으나 여전히 사본이 같은 계열이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오는 성경에서 삭제, 첨가, 오역을 하므로 오히려 개역성경보다도 영성이 없으며 번역에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김수정 원장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개역 및 개역신약전서 검증소고 (2)

따라서 오역은 복음의 기본의미에 오해를 가져왔고 성경해석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학구성에도 부정적 의미를 가져왔다. 신약은 기본단어 5,624개가 신약전체에서 여러 형태의 변형을 통하여 전체 138,020개 단어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Analytical Greek New Testament" (AGNT)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고 KJV는 180,552로 숫자통계에 차이가 난다.

그것은 KJV에서 원어에 없는 첨부가 많아서 생긴듯하다. 그런데 개역신약전서에서는 그 단어들 중에서 16,818개가 생략 되였다. 생략된 단어들은 대부분이 접속사와 인칭대명사들이다. 이 숫자는 번역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번역과정에서 번역이라기 보다는 번안이나 오역에 가까운 숫자이다.

전체 신약의 전체 숫자가 138,020개 단어라 할 때에 16,818의 생략은 12.18%로 너무나 많은 비율이다. KJV의 180,552로 계산 할 때에는 0.93%여서 그 비율이 약하다. 그러나 어느 통계가 되더라도 10%의 생략이 된다는 것은 성경번역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개역신약전서에서는 하나님이 본래에 영감으로 기록하신 뜻과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것은 접속사 등이 생략 되어서 그 의미가 끊어진 것이다. 그것은 개역전서에서 생략으로 절 단위로 번역 되어서 문맥이 끊어졌고 전반적으로 앞뒤의 문맥이 단절 되였다. 그와 같은 왜곡은 접속사가 생략된 곳마다 일어난 현상이다. 예컨대 마5:3를 예로 살펴 본다.

Maka,rioi oi' ptwcoi. tw/| pneu,mati o[ti auvtw/n evstin h' basilei,a tw/n ouvranw/n (헬라어) Blessed〈are〉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KJV,NKJV.NIV.ESV.NASB,RSV, ASV, YNG,DBY,WEB,HNV,

ARA),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개역,개역개정) 영이(pneu,mati-프뉴마티 in spirit 가난한 자들은(ptwcoi.-프토코이 the poor복이 (Maka,rioi-마카리오이 Blessed〈Maka,rioj〈50〈13 있나니(are 이는(o[ti-호티 for 천(들)(ouvranw/n-우라논 of heaven 국이(basilei,a-바시레이아 kingdom 저희 것임(auvtw/n-아우톤 theirs 이요(evstin-에스틴 is(원어신약성경)

위의 예문은 예수님의 8복에서 다 같이 적용된다.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이 저희 것이 복이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이는 o[ti 가 생략되어서 복이 있는 이유가 없게 되였고 그래서 그 절의 전체 의미가 왜곡 되였다. 이러한 예는 접속가 생략된 모든 절에 다 같이 적용된다.

이 접속사는 신약1,189절에서 전체 1,293번 나오는데 전부 그와 같은 뜻으로 번역 되였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그 절은 오역이다.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로마서의 예를 들어본다. 로마서 1:15에서 말씀은 ou[twj to. kat evme. pro,qumon kai. u'mi/n toi/j evn ~Rw,mh| euvaggeli,sasqai(헬라어) 그러므로 나는 할수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개역, 개정개역판)

그러므로(ou[twj-후포스 So 나는(evme.-에메 in me 할 수 있는 대로(katV-카트 as much as 로마(~Rw,mh-르호메 Rome 에(evn-엔 at 있는(toi/j-토이스 that are 너희에게(u'mi/n-휘민 unto you 도(kai-카이. also 복음 전하기를(euvaggeli,sasqai- 유안게리사스다이 to preach the gospel 원하노라 준비 하노라 1)(pro,qumon-프로뒤몬 I am ready,(원어신약성경) 고 하였다 원하노라는"준비 하노라"로 우리는 개정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로 다음 16-20절에서 7가지를 제시한다.

(1)1:16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2)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3)1:17 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1:18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5)1:19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고 (6)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며 (7)1:20 이는 세상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까지 만드신 만물(들)에 의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사용된 접속사 ga.r 은 1,016절에서 1,067번 나와서 의미를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 접속사도 o[ti와 같이 대부분 생략되어 문맥이 끊어졌다. 개역판 대로한다면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접속사 ga.r를 번역함으로서 그이유가 7가지로 분명해졌다.

따라서 성경번역에서 접속사의 생략이 앞뒤의 문맥 중에서 원인과 이유설명에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도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하신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해서 오역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생략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대사이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그 많은 신약학 교수들은 말이 없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접 속사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을 생략한 예로 누가복음 4:9를 예로 들어본다.

이 예문에서 개역판과 개역개정판은 생략이 너무 심해서 가장 의역을 많이 한 NIV와 개역판과 문자적으로 번역한 KJV와 TR직역과 원어신약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다르다.

(1)kai.. :Hgagen auvto.n eivj VIerousalh.m kai. e;sthsen auvto.n evpi. to. pteru,gion tou/ i'erou/ kai. ei=pen auvtw/| Eiv o' ui'o.j ei= tou/ qeou/ ba,leseauto.n evnteu/qen ka,tw\(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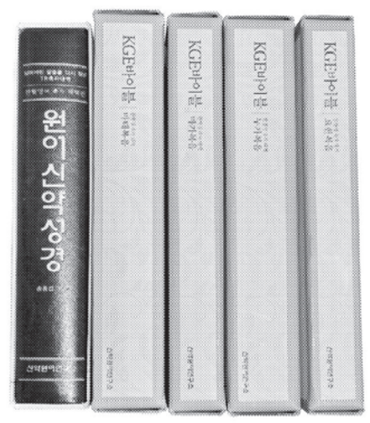
(2)And he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set him on a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unto him, If thou be the Son of God, cast thyself down from hence(KJV)

The devil led him to Jerusalem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NIV)

(3)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개역,개역 개정)

(4)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또 그가 그분을 성전꼭대기에 세우고 또 그가 그분께 가로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네가 네 스스로 여기서 뛰어 내리라(TR 직역) (5)또 이끌고(kai.-카이 and 그가(he 그분을(auvto.n-아우톤 him 예루살렘(VIerousalh.m-이 에루사렘 Jerusalem으로(eivj-에이스 to 이끌고 가서(:Hgagen-에가겐 he brought 또(kai.-카이 and 그가(he 그분을(auvto.n-아우톤 him 성전(i'erou-히에루 of the temple 꼭대기(pteru,gion-프테뤼기온 a pinnacle 에(evpi.-에피 on 세우고(?,sthsen-에스테센 set 또(kai.-카이 and 그가(he 그분께(auvtw/-아우토 unto him 가로되 이르되(ei=pen-에이펜 said 네가(thou 만일(E?-에이 If 하나님의(qeou//-데우 of God 아들(ui'o.j-휘이오스 Son 이어든(ei=-에이 thou be 네가 네 스스로(seauto.n-세아우톤 thyself 여기서(evnteu/qen-엔튜덴 from hence 뛰어(ba,le-바레 cast 내리라(ka,tw-카토 down(원어신약성경)

위의 본문에서 헬라어와 문자적 번역을 하되 주어가 같은 경우에서 서술동사의 주어는 앞의 것은 번역하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서술동사의 주어는 번역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he는 Brought의 주어는 번역하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e;sthsen-set의 주어 he 그는 번역하지 아니하였다.



역판 KJV와 의역을 많이 한 개역 및 개역신약전서에서 동등접속사와 인칭대명사에서 구체적으로 생략된 것과 성경번역의 기본자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번역방법에서 KJV는 문자적

KJV의 이 번역방법은 헬라어 동사는 문자적으로 번역하였다는 기본주장에 어긋난 것으로 필요시에 의역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어 신약성경에서는 그러한 동사의 주어도 사용 되였을 때에 반드시 그 동사의 주어를 번역하였다. 그런데 번역상 문제가 되는 것은 NLT와 NIV의 의역이다. NLT와 NIV는 주어"그"를"The devil"마귀로 의역하였다.

그러나 다른 영어번역판들은 원어대로"그로"번역하였다. 원어와 개역판을 비교할 때에 개역판은 "그가 그분을 또 그가 그분을 또 그가 그분께 네가 네 스스로"등은 번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 진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약전서의 번역의 정확성이 그와 같은 수준이다.

신약전체에서 그와 같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16,818이나 된다. 그 숫자에 동사의 인칭대명사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은 생략은 심각하다. 계시록 10:9를 한 예로 들어본다.

(1)kai. avph/lqon pro.j to.n a;ggelon le,gwn auvtw/| Do,j moi to. biblari,dion kai. le,gei moi(TR)

(2)And I went unto the angel, and said unto him, Give me the little book. And he said unto me,

Take [it], and eat it up; and it shall make thy belly bitter, but it shall be in thy mouth sweet as

honey(kJV)

한기총, 제94주년 3.1절 맞아 성명서 발표

민족적 3.1운동 정신 승계하여, 신앙의 절개 지키는 데 앞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제94주년 3.1절 기념 성명서를 통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지켜왔던 성경적 보수 신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세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듯, 한기총은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임을 재확인 시켰다.

이어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되찾은 국권과 민족의 자주성이 분단과 전쟁의 공포로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특히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다. 또한 북한은 핵물질 영구 폐기와 같은 책임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협력하기를 요청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민족적 삼일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온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길 당부했으며,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서, 3.1운동 당시와 같이 민족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치열한 자아 성찰과 내부 개혁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것이며,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10만 교회 2천만 성도 시대를 열고 한반도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제94주년 3.1절을 맞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94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뿌리내린 초기부터 뛰어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휘하며 그 지도력을 발휘해 왔고, 특히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언자적 · 선지자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 매우 뜻 깊은 사건이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음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 16인을 차지하는 등 이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보루 역할을 감당했다. 평화적 · 자주적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확산시켰으며 인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국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을 지속했고, 민족 계몽과 근대화에도 힘썼으며,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실로 한국교회는 현대사와 함께 숨 쉬며 대한민국을 견인했고, 하나님께서도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셨다.

이제 제94주년 3.1절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교회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지켜왔던 성경적 보수 신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세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복음의 절대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고백을 회피하는 이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듯, 한기총은 이 같은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되찾은 국권과 민족의 자주성이 분단과 전쟁의 공포로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특히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한다. 북한은 핵물질 영구 폐기와 같은 책임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협력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각종 불공정 행위,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 등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때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삼일운동은 한 사람으로는 작은 외침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었고, 나아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민족적 삼일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온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서, 3.1운동 당시와 같이 민족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치열한 자아 성찰과 내부 개혁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것이다. 또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10만 교회 2천만 성도 시대를 열고 한반도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한기총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2013년 3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칼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자

디딤돌이란 마루 아래나 마당에 놓아 디디고 오르내리게 한 섬돌이요, 걸림돌이란 발길에 거치적거리는 돌, 무슨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것이다. 디딤돌은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상하좌우 모든 면에서 소통이 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걸림돌은 이와 정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디딤돌이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항상 공존한다. 디딤돌과 걸림돌의 역할 기여에 따라 삶의 질과 분위기는 달라진다.

디딤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힘이 되어 이 사람 때문에 막힌 것도 뚫리고, 닫힌 것도 열리고, 얽힌 것도 풀어지고 일이 잘 되게 한다. 딛고 잘 오르내리게 하는 돌, 딛고 잘 건너가게 하는 돌,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디딤돌 같은 사람이다.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면, 그래서 나로 인해 잘 오르내리고, 잘 딛고 건너고, 나로 인해 소통이 잘 되면 그 공동체는 꽤 괜찮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가정도, 사회도 한결 원활하다. 그러나 디딤돌이 되는 데는 희생과 용서와 사랑, 양보, 관용, 인내, 눈물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디딤돌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정 반대로 어떤 일에서나 걸고넘어지고, 거치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다. 그 사람 때문에 꼬이는 일이 있고, 일이 되다가도 비틀어지고, 잘 나가다가 막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담스럽게 만든다. 부딪히고, 소리나고, 시끄러워지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혀 시끄럽게 소리나는 돌, 얽혀서 소통을 못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걸림돌이면, 그래서 나로 인해 막히고 시끄러우면 가정도, 사회도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꽤나 힘들다. 용서와 사랑, 희생, 양보, 관용, 인내, 이런 것들의 결핍에서 걸림돌이 생겨난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경우 훈련되지 못한 생각과 경솔한 입이 문제다.

속담에"들은 말, 들은 대로 버리고, 본 말 본대로 버려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서 못들을 말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못 볼 것을 보았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라는 것으로 듣고 본 것을 경솔히 옮기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디딤돌이 되기를 힘쓰자.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 때 정치, 사회, 가정 모두가 건강해진다.

나는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담임
본지 부흥사협의회 총재

언론협 위상과 회원 교류 강화 주력

한국기독교언론협회 2회 총회, 윤범석 회장을 비롯 전 임원 유임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윤범석) 제2회 총회가 15일 정오12시 초향에서 열려 윤범석 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을 유임시키고 협회 위상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윤범석 회장(크리스천헤럴드)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대과없이 2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이라면서"보다 겸허한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기며, 교계 정화와 개혁의 밑거름이 되는 협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잠언 6:6~11"을 본문으로"부지런한 언론인"제하의 설교를 한 본회 총무 박병득 목사(샘이깊은교회)는"게으름이란 단어는 병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서"그러기에 암과 위장병 같이 고쳐야 할 질병이며,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독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되, 깊은 연구와 지혜, 창조적 생각 속에 움직일 때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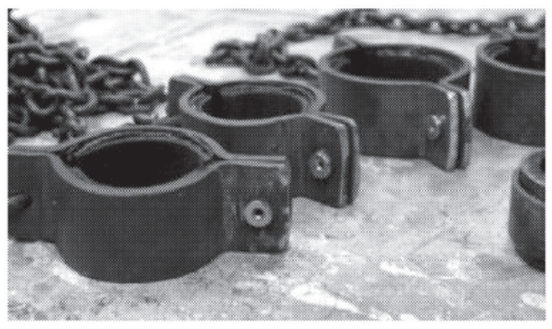
이어 정기남 목사(본회 감사)의 축도 후에 2부 총회를 가졌다. 회순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 초기인 만큼 보다 견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윤범석 회장을 비롯하여 전 임원을 유임시키기로 했고, 협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유대강화를 위해 기자수첩 및 취재수첩을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목회자사모신문 한선현 국장과, 정통개혁공보 이재환 국장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임원 : 회장 윤범석(크리스천헤럴드 국장) 총무 박병득(기독교성결신문 국장) 서기 김성수(기독인뉴스 국장) 회계 이수미(연합기독신문 국장) 감사 정기남(지저스타임즈 국장)

문체방통위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정부출범 방해 국정실패 유도, 당리당략보다 從北 성향 의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닷새가 지났다. 그런데도 새 정부를 담을 그릇은 민통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배 째라! 식" 발목잡기로 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도 새누리당도 민통당도 속수무책인 채 질질 끌려만 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의 의미가 없다. 새 정부구성은 당선자의 권한이지 야당이나 일개 상임위의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장을 포함 15명, 민주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정의당 1명 계 30명으로 구성 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13명이 발목을 잡고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핵심인물인 이석기와 진보정의당 강도원이 가세를 하여 요지부동으로 새 정부 출범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 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당리당략이라기보다도 종북적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딴족을 걸음으로서 새 정부의 출범자체를 방해하고 국정의 차질을 빚어 실패한 정권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각 부처에 흩어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관련 업무를 통할 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산업경쟁력지수 3위(2007년)에서 19위(2011년)으로 급속 추락한 정보통신기술(ITC) 개발에 피치를 올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야당의원들이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어떤 반대에도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전적으로 옳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새 정부 구성의 주체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영역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침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악질적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정부의 독주와 독단을 경제하기 위해서 개헌이나 대통령탄핵 의원제명 등 중대 사안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2/3이상 찬성기준을 두어 1/3 소수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의안의 경우 과반 다수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인수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 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모양새는 사납지만, 표결처리가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소수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태클을 걸어 정부출범 자체를 방해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기록돼야 한다.

김대중 정권 출범당시나, 노무현 정권 출범당시나 원내 제1당은 현 새누리당(신한국당/한나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출범에 적극 협조했다.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낼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를 한 역사가 없다.

그런 면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식 장병완 전병현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등 13명은 새 정부출범 저지,국정방해로 원내 소수횡포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민통당 소속 문체방통위원들의 행태에서 "반유신 반보수 진보대통합" 김정은 대남명령1호(2012.1.1) 그림자와 "박근혜 초전박살" 선거투쟁(2012.7.23) 2라운드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나만의 시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이 자들에 대한 낙천운동을 벼르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역사의 기록을 위해 2013.3.2 현재 문체방통위 명단을 남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15명) 김기현 김을동 김장실 김희정 남경필 박대출 박창식 염동열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조해진 주호영 한선교 홍지만

민주통합당(13)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식 장병완 전병현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통합진보당(1) 이석기, 진보정의당(1)강동원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한교연 2-1차 임원회

예장 개혁 D교단을 '개혁종로' 명칭 변경을, 하와이이민 110주년 개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2-1차 임원회가 지난 2월 22일(금) 오후2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2개 단체의 가입을 심의하고 하와이이민110주년 한민족복음화대회 개최 등 안건을 가결했다.

3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2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채택하고 김춘규 장로의 사무총장 인준과 가입실사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단법인 기쁜소식(이사장 김용덕 장로), 지난 총회에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토록 돌려보냈던 (재)국제복지선교협회(회장 이완순 목사) 두 단체를 심의,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임원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하와이 이민 11주년 한민족복음화대회를 해당 위원회인 하와이1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김수읍 목사)로 보내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D'를 해교단의 요청대로 '개혁종로'로 교단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측이 요청한 공동부회장 명단을 변경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한국교회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계한민족목회자선교대회와 한국선교130주년기념 준비위원회 조직도 허락했다. 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교연 법률자문단 추천을 대표회장과 전 대표회장, 서기 사무총장 등 실무 임원들에게 위임했으며, 업무용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했다.

임원회는 또한 지난 2회 정기총회에서 총회보고서에 포함된 바른신앙수호위원회 보고서중 이단사이비관련 연구안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회의 말미에 지난 총회에서 모든 사업 및 경과보고가 유인물대로 채택되면서 마치 일부 특정인사에 대한 이단사이비 연구보고까지 정식으로 결의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고 총회보고서 중 바수위 연구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수고한 직전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에게 순금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으며, 임원회에 이어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21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이 같은 장소에서 거행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담임 정연수 목사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라이브우아트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라이브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3시(라이브우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5시(라이브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백동홀)
어린이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라이브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라이브우아트홀)
수요기도회(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라이브우아트홀)
수요기도회(본) 매주 수요일 오후 7:30(라이브우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30(라이브우아트홀)
셀(목장)모임 수요일(부) 오전 10:30(라이브우 비전홀)
셀(목장)모임 수요일(본) 오전 9:30(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라이브우아트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문화교실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안내
담임 이 선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교회
신천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변화의 능력

말씀: 사도행전 4장 13-16절 찬송: 88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최고 학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거칠 것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학문 없음이 그들이 하는 말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은 이처럼 성도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순위의 명확성

말씀: 사도행전 4장 17-19절 찬송: 350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을 진리의 대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함

말씀: 사도행전 4장 20-22절 찬송: 200장

하나님 앞에 서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말씀: 사도행전 4장 23-24절 찬송: 32장

초대교회는 세상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세상의 크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에 대한 신앙고백

말씀: 사도행전 4장 25-28절 찬송: 461장

예루살렘교회는 세상의 관원과 군왕들인 대적자들과 비교할 때 대단히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수가 대적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에 대한 신앙고백

말씀: 사도행전 4장 29-35 찬송: 490장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보다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을 위협하는 현실을 굽어보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대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봉헌의 재료

말씀 : 사도행전 4장 36-37절 찬송: 65장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마음을 담기 원하십니다. 바나바는 전 재산을 헌납하고 사도들로부터'위로의 아들'이라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남과 비교해 뒤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헌신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정직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봉헌의 목적

말씀 : 사도행전 5장 1-6절 찬송: 212장

하나님은 행위의 목적을 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대신 악령이 충만하면 목적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봉헌과 헌신은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목적으로 봉헌과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봉헌의 대상

말씀 : 사도행전 5장 7-11절 찬송: 279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치의 역사

말씀 : 사도행전 5장 12-16절 찬송: 35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때 일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일치되었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되자 거룩한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들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일치는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기

말씀 : 사도행전 5장 17-18절 찬송 : 350장

사도들을 통해 민간에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기는 미래를 닫습니다. 사명을 가둡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전파

말씀 : 사도행전 5장 19-28절 찬송 : 539장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서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 도망가는 대신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위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박해가 있다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

말씀 : 사도행전 5장 29-32절 찬송 : 449장

하나님께로 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당시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회개와 죄 사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과 구주되심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롯된 일

말씀 : 사도행전 5장 33-39절 찬송 : 484장

하나님께로 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이 능욕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입니다. 따라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개그우먼 신보라,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

"주신 사랑, 이젠 나누며 살고 싶다"

발랄한 재치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온 국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개그우먼 신보라가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씨로 나눔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14일 오전 개그우먼 신보라를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201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개그우먼 신보라는 〈남자의 자격〉 합창단의 '넬라 판타지아'와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 등으로 승승장구하면서도 항상 베푸는 법을 잊지 않았다.

그는 월드비전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사랑 나눔 콘서트'와 '등록금 기부 콘서트'에도 참석해 자신의 목소리를 나눠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발매했던 CCM 앨범과 그녀가 속한 그룹 '용감한 녀석들'의 첫 싱글 '기다려 그리고 준비해' 등의 음원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 씨는"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아온 것 같다"며,"주신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살라는 의미로 알고,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1991년, 국내에서 연예인 친선/홍보대사 활동의 효시인 배우 김혜자 씨를 친선대사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박상원 씨, 정영숙 씨, 한인수 씨, 정애리 씨, 최인혁 씨(CCM 가수)를 친선대사로 위촉했으며, 배우 한혜진, 박정아, 지진희, 이광기, 아나운서 박나림, 前 프로야구선수 양준혁, 2PM 준호, 김효진-유지태 부부, 유준상, 홍은희 부부가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따뜻한 마음을 지닌 신보라 씨가 우리와 함께했으면 하고 생각해왔었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매우 기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보라 씨와 월드비전이 함께 지구촌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한 고귀한 나눔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국제 자연치유 선교회

《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 세미나 》

◈ 강사: 차상기 박사 〈임상병리사/한의사〉

◈ 목적: 전도를 위한 자연치유 전문 사역자 양성

★ 특징
1)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2) 쉽게 마음문을 열수 있다.
3) 쉽게 접근 할수 있다.
4) 대화가 쉽게 이루어 진다.
5) 쉽게 교회로 인도 할수 있다.
6) 공감대를 쉽게 이룰수 있다.
7) 전문치유 사역자가 되어 전도를 쉽게 할수 있다.
8)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참가비 1만원
- 중식 제공
- 준비관계로 하루 전 예약바람
- 리딩바디 전도법 수료증
-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건강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 당일 오전 10시 30분-50분까지 아산전철 역 에서 봉고 대기
- 3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자연치유 사역 전문 교육이 실시됩니다.
- 1년 2학기 코스 1

일시: 2013년 3월 19일 오전11시, 오후 3시 장소: 배방감리교회 3층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424-6 전화: 041-548-1031 임기석 목사 시무
☎ 문의 010-5450-8406 /010-6641-8291/ 016-348-6374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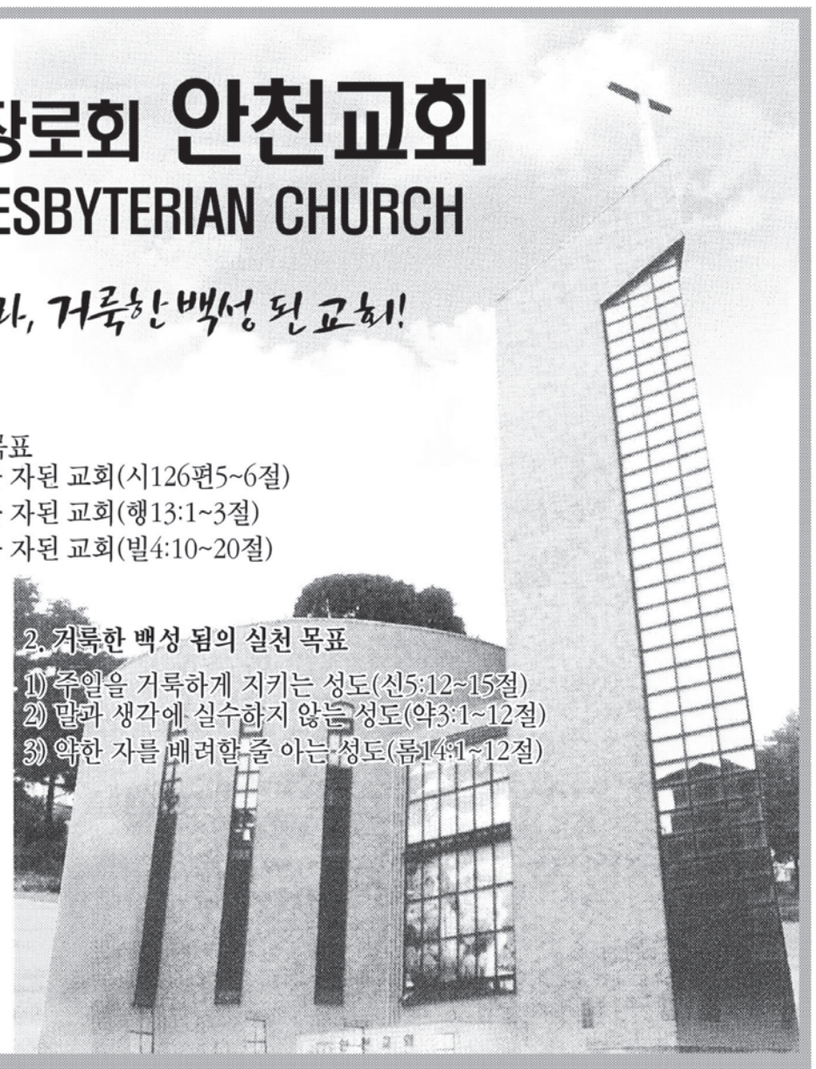
표어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교회!

1.실천 목표
1. 제사장 나라 됨의 실천 목표
1) 교육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시126편5~6절)
2) 선교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행13:1~3절)
3) 섬김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빌4:10~20절)

2. 거룩한 백성 됨의 실천 목표
1)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2) 말과 생각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약3:1~12절)
3)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도(롬14:1~12절)



담임 서정환 목사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한국교회 대안으로 떠오르는 아바드리더시스템

장수가 된 다윗의 용사들 "용사 세우는 시스템 공개"

부흥의 용사로 변화시키는 장수 이경은 목사, 아바드리더시스템, 용사 세우는 시스템 공개, 누구든지 강한 용사로 우뚝 서는 시스템 공개,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를 강사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함으로써 성도를 용사로 세우는 순복음진주초대교회(이경은 목사)아바드리더시스템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라는 주제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기존의 아바드리더시스템의 장. 단점을 보완, 왜 아바드리더시스템이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를 세우는 시스템인가에 대해 집중 해부하고 노하우를 공개했다.


강사 이경은 목사

주 강사 이경은 목사는 2013 아바드리더컨퍼런스를 통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성도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은 목사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에게 모인 무리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의 요구대로 행하는 용사가 됐다"면서 "역대상 13장 1절에서 다윗과 더불어 의논하는 장수로 쓰임 받게 되었고, 이런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라는 주제로 매년마다 아바드리더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용사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해 용사가 된 사모, 부교역자, 성도가 펼치는 최고의 퍼포먼스와 아바드리더시스템 적용 사례 및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개하는 등 성경적인 기독교 축제이다"면서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설교 고민이 해결됐다"면서 "교회에 아바드리더시스템을 적용,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아바드리더시스템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로 세우는 시스템"인 것을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여기서 용사는 섬기는 자이며, 섬기는 삶을 사는 용사는 리더가 된다"면서 "용사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주의 종은 힘이 있게 되며 성도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사가 가정을 섬기면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이 있게 되며 자녀는 성공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면서 "가장 큰 용사는 사모이며, 가장 힘을 주는 용사는 부교역자. 가장 충성된 용사는 성도"라고 덧붙였다.

아바드리더시스템은 '섬기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함으로써 성도를 용사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도를 용사로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 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아바드리더시스템은 1단계 전도와 2단계 새가족반, 3단계 성장반, 4단계 핵심반, 5단계 청지기반, 6단계 비전반, 7단계 용사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마친 성도는 평신도로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아바드 사역반 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바드리더시스템의 특징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용사)을 세우고, 창조의 목적 회복, 용사의 꿈을 이루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 훈련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모, 부교역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로 세우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든다.

무엇보다 각 과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단계적 성장을 발견, 그 단계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는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하여 6,500여 명이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2010년, 2012년에는 아바드리더시스템 세미나를 수료한 각 기수 목회자들의 주관으로 아바드리더시스템 전국순회세미나를 개최, 전국에 있는 6,0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불어 넣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달 29일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부에서 지역순회 아바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서울성경신대원대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새로운 현장으로의 개척, 선교를 위해 변방으로 나아가라!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노왈수 박사)에서 지난 5일(화)오전11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4가길 소재 대천교회 본당에서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생처장 임창일 교수의 인도로 먼저 축하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이사, 교수, 졸업생 순으로 입장하고, 이사 강 철 목사(대천교회 담임)가 기도를, 인도자의 성경봉독(마가복음 11:27~33)과 재학생들의 특별찬양에 이어 순장총회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성경인, 변방성의 신앙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지 총회장은 이날"재학생과 졸업생이 성경인이며, 성경인은 또한 변방인라고 하면서 변방성의 신앙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방성, 이방성을 강조하셨고, 기득권을 나누라, 이익을 분배하라, 가장자리에도 내려가고, 변방으로도 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은 변방성 이방성에 있다고 했다.

둘째로 변방성의 신앙인이 되려면(사42:1)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의 특징은 변방성인데, delight (기쁨, 즐거움, 유쾌함,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하나님께서 기뻐(delight)하시기에. 나의 편함, 나의 기득권, 체면,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며, 틀을 깨고 넘어가는 것, 가장자리를 찾아가는 것,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것, 개척교회도 가능한 것, 사례비 적은 곳도 머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걸음을 내 디딘 자, 성경인이여! 복음이 변방과 이방으로 퍼져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복음이 옥토뿐만 아니라 박토에도 뿌려지게 하자. 하던 목회 사역, 하던 학업을 또 계속하라, 새로운 현장으로의 개척, 선교를 위해 변방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행복,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변방으로 나갈 수 없다. 틀을 깨고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 총회장은"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1 마리의 양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눈 열어 주소서! 그래서! 틀을 넘게 해 주소서! 선을 넘게 해 주소서! 다른 교회, 다른 기관, 소외된


총장 노왈수 박사

나라와 사람들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 개척, 나눔, 비움이라 부른다하고. 참된 성령의 역사는 내 것을! 담아 놓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가두어 놓지 않는다. 뻗어나가게 한다. 오늘! 원우들이여!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변방을 향하소서! 낮은 곳으로 향하소서!"〈아멘〉

총회장 지태영 목사 졸업식 설교는 www.jtntv.kr인터넷 JTNTV방송을 시청..

이어 교학처장 임창일 박사의 학사보고, 총장 노왈수 박사(사진)는"목회학석사과정(M.Div.) 신학석사과정(Th.M.)등에게 학위수여를, 평생교육원상담전문과정 수여식을 거행했다.

1.총장상: 이아름(M.Div.), 차성호(Th.m.) 2.이사장상: 남성철(M.Div.), 3.총회장상: 염지웅(M.Div.), 4.총동문회장상: 천계주(M.Div.) 등에게 각각 상장수여를 했다.

이어서 총장 노왈수 박사는 훈사에서 딤후 3:14, 16, 4:2 절을 봉독하고 1.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다. 본 성경연구원에서 2년 동안 학업을 연구하고, 또는 목회학 석사과정 (M.Div.)에서 3년 동안 땀 흘려 매우 많은 노력과 연구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신학석사(Th.m.)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여 학위를 받게 된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했다.

또한 노 총장은 2."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그동안 땀 흘려 열심을 다해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헌신하며 지내왔다. 이름 그대로 본 대학원대학교에서 성경 말씀대로 잘 훈련을 받았다. 잘 준비를 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갈 때가 되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갈 때가 되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크리스챤다운 크리스챤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영적지도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영혼구원이 나의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명심하라는 말씀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지고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며 알아주는 곳이 없을지라도 영혼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졸업자가 되어달라며 축하로서 훈사를 마쳤다.

이사장 전충현 목사가 격려사를, 동천교회 이죽봉 원로목사의 축도가 있은 후 이사, 교수, 졸업생, 일반인 순으로 퇴장 행진으로 마쳤다.

한편 학위수여 및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광정(M.Div.) 강효숙, 이광주, 천계주, 강문심, 공두환, 김영희, 나순주, 남성철, 남야긴, 민영광, 신승열, 염성명, 염지웅, 오창래, 유희정, 이경순, 이부영, 이아름, 장보라, 장현진, 정기호, 주범돈, 채규철, 최영미, 황의구

신학석사과정(Th.m.) 김영규(칼빈의 설교에 관한 연구), 조도현(이머징 예배에 대한 이해와 평가), 차성호(탈북민 크리스천 리더십 개방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원상담전문과정 박성애 등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D.Ed., ThD.)

지명명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확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본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님,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 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院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흥탄교수(교회장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권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고고학)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아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곤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섭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t)(露)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 금요기도회 : 밤 9시 /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 길
〈도시형버스〉 1 중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 850 고양동 ↔ 행신역 /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 9701 가좌동 ↔ 명동 9713 본일산 ↔ 서울역
〈직행좌석〉 82 내유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自是之癖으로 신음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경을 알면 WCC를 안다. WCC의 성서관

우리는 지금까지 본 신문을 통해 WCC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와 '한국교회의 3대 위기론'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自是之癖 (자시지벽)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自是之癖 이란 말은 독자들 가운데는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이다.

한자로 '버릇 벽(癖)' 자는 네 글자가 결합하여 한 글자를 형성되어 있어 이 글자를 바로 이해하면 自是之癖을 아는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한다. ▲(병들어 기댈 벽) 변에, ▲(죽검시) 밑에, 口(입구), 그리고 우측에 辛(매울신) 자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어 쉽게 '버릇 벽(癖)'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글자 획을 모두 합하면 18획이 되고 이 수치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짐승의 수 666(6+6+6)를 나타내 주고 있다 (계13:18).

성경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시49:20)고 했다.

自是之癖 의 사전적 의미로는 ① 항상 자기의 의견만이 옳은 줄로 여기는 버릇 ② 편벽된 소견을 고집부리는 버릇을 뜻한다. 이런 고집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습성이 되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교훈이다.

이 병은 치매(imbecilit)현상과 같이 사람들의 뇌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난치병에 속한다. 이 병이 지금 한국에서 WCC를 지도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 가운데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가운데 다음과 같은 5단 논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성경과 수리학 (水理學)
2. 병의 증세
3. 병의 원인
4. 自是之癖 의 지도자들
5. 치료 방법

Ⅰ. 聖經과 水理學

1.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일본의 水理學으로 유명한 에모토 마사루가 저술한 그의 책 표제이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물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물과 대화를 나누고 물의 여러 형체를 사진에 담아 책을 만들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에는 99퍼센트가 물이다. 막 태어났을 때에는 90퍼센트, 완전히 성장하면 70퍼센트, 죽을 때에는 약 50퍼센트 정도가 물이 된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 상태로 살아간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볼 때 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을 알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면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필자의 의역, 머리글에서).

2. 지표 물고기 론

물고기를 보면 물을 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물고기 박사' 최기채 교수는 30년 동안 전국 75만 곳을 답사한 끝에 수질 등급을 가리는 '지표 물고기론'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1급수에 사는 물고기 : 버들치, 열목어(熱目魚), 산천어(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上水) 2) 2급수에 사는 물고기 : 피라미, 갈겨니(멱 감는 물) 3) 3급수에 사는 물고기 : 붕어, 잉어 (탁한 물 농사짓는 마실 수 없는 물) 4) 4급수에 사는 물고기 :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수잿 물)

3. 성경과 물

물을 알면 성경을 안다.

성경에는 물에 대한 기록이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처음(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개역성서, 神은 오역) 수면에 운행했다(창1:1-2).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윗물(上水)과 아랫물(下水)로 분류하셨다. 그 사이로 궁창이라 칭하고 그 공간에 사탄의 거처가 되게 했다(엡2:2). 그리고 에덴동산에는 거대한 4대 강이 흘러내려 인류역사 6천년의 유구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서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역사의 종말을 고한다(계16:12-16). 이렇게 볼 때 인류역사 6천년(구약 4천년 언약 2천년)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끝마친다. 물은 곧 성경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곧 '물의 전쟁'이다.

4. 성경을 알면 WCC를 안다.

WCC는 1948년 창립이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110개 나라에 349개 교단, 그리고 5억8000만의 회원을 자랑하는 개신교 최대의 교회협의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체를 배격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저들이 믿는 성서와 우리가 믿는 성경관의 차이점 때문이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고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합할 수 없는 원리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물(말씀)을 알면 WCC를 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호칭하는 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라고 호칭한다. 누구든지 聖經과 聖書를 구분할 줄 모르면 종교 다원주의 및 혼합주의자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성서는 단순한 사람의 글(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저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18:4).

5. WCC의 성서관

(1) 성경은 중요한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은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수단이다. 성령의 인도로 성경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된다.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그것을 읽는 독자의 실존적 체험이 계시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 에큐메니칼 성경해석이야말로 성경을 계시화 하는 작업이다.

(3) 성경은 무오(無誤)한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문학서,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오류 있는 인간의 책이다. 상대적인 권위를 가질 뿐이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영감 된 말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현대인의 삶의 이야기들의 의미를 가늠하게 해 주는 척도인"영감된 증언"을 담고 있을 뿐이다.

(4) 성경은 전통(전승)의 산물이다. 성경의 본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의 일부이다. 따라서 진리는 "해석학적 에큐메니칼 수렴(convergence)"을 거쳐야 하고, 정합성(coherence)의 해석하과 의심(suspicion)의 해석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문서이기에 권위가 있다. 성경은 독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encouter)'의 도구라는 부수적인 권위만을 가지고 있다.

(6)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객관적 규범이 아니며 표준이 아니다. 성경은 기독신자에게 부과된 신행(信行)의 규범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아니며, 신행의 표준도 아니다. 독자의 특별한 경험(체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경은 기초적인 규범과 시금석이 된다.

(7) 자기의 성경관과 성경해석을 고집하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성령의 진리를 짐짓 상실할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모두 다 성령(聖靈)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다른 교회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진리를 상실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8) 성경의 상대적 가치만을 인정할 때 비로소 WCC와 일치 할 수 있다. '오직성경' 원리에 연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성경에 절대성을 부여 하는 것은 세계 교회 일치를 방해 한다.

WCC '에큐메니칼 성경관'의 특징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성경불신주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WCC무엇이 문제인가?(한국기독교 WCC 반대대책위원회,pp.161~164)

11. 自是之癖의 증세

1. 自誇自尊(자과자존): 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임.
2. 自畵自讚(자화자찬) : 스스로의 일을 추켜 찬양하고 자랑 함.
3. 自行自止(자행자지) :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함.
4. 自賤拜他(자천배타) : 자기 것은 천시하고 남의 것은 숭배 함.
5. 自相矛順(자상모순) :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어긋남.
6. 自家撞着(자가당착) :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어긋남.
7. 自過不知(자과부지) :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모름.
8. 自歸勿論(자귀물론) : 저절로 흐지부지 하여짐.
9. 自業自得(자업자득) :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오를 자기가 받음.
10. 自作之孽(자작지얼) : 자기가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
11. 自中之亂(자중지란) : 자기네 패속에서 일어나 싸움.
12. 自見者不明(자견자불명) : 자기 자신의 결함을 명백하게 볼 수 없음.
13. 自繩自縛(자승자박) : 자기 말이나 행위로 자기가 얽혀 들어가 묶임.
14. 自愧之心(자괴지심) :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Ⅲ. 自是之癖의 原因

1. 주기환 박사의 증언

주기환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가'? 라는 책에서 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체의 활동에 중추가 된다.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 단 몇 분도 살지 못하듯이 물이 없으면 며칠도 살지 못하며 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신비롭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물은 각종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작용을 나타내며 그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물의 성질과 종류, 그리고 다양한 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물과 건강에 대하여 그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피부를 미끄럽게 해준다. 2)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3) 혈액의 끈기를 없애고 뇌졸중을 막아준다. 4) 변비에 좋다. 5) 감기를 예방한다. 6) 음주시 간장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술독을 풀어준다. 7) 방광염과 방광암의 예방. 8)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통증해소와 소화기를 강하게 한다. 9) 감기로 발열 했을 때 열을 내려준다. 10) 다이어트로 물은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11) 운동 뒤에 마시면 피로가 빨리 풀린다. 12) 몸이 붓는 것을 막는다. 13) 설사를 막아준다. 14) 노인은 물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마시므로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15) 뇌와 심장에는 '탈수 방지센서'가 된다. (특집, 물과 생활, pp.50~53).

다음호에 계속



손기태 목사
한빛교회 / 신학박사

聖經과 聖書를 구분할 줄 모르면 종교다원주의 및 혼합주의가 된다









안천교회, 서정환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화재로 전소된 안천교회 재건축하고 지켜온 유영섭 목사 원로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는 지난 2월 28일(목) 오후 7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소재 본당에서 유영섭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서정환 목사를 안천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순장총회 남부노회 총무 손종필 목사의 개식사로 진행된 예배에 지태성 목사(동부노회장)가 기도를, 인도자의 성경봉독(막 11:12~25절)과 안천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희생과 살림이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지 총회장은 이날 안천교회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유영섭 목사를 위로와 격려하고,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서정환 목사를 축하하면서 30년 이상을 안천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지켜온 유영섭 목사의 업적을 기리면서 안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부흥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온 유영섭 목사, 장로들, 성도들을 크게 위로했다.



그러면서 지 총회장은 안천의 승리의 종소리, 성공의 종소리, 영광의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에 안천의 종은 더 아파야 했다. 평양에서 시작된 1907년의 부흥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계신다. 거룩한 승리와 부흥의 열매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신다. 이름 그대로 안천, 평안의 강물이 아름답게 곱게 노래하며 흘러가기를 소원하신다.

오늘 원로로 취임하는 유영섭 목사님을 감격과 감사로 떠나게 해 드리시길 바란다면서 아픔, 속상함, 허전함 들이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고, 아울러 새로 취임하는 서정환 목사를 평안과 감사로 환영했다.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훌륭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있어도 하늘을 날려고 하고 날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깃털 하나로 멋지게 비상하는 안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만세, 안천교회 만세로 설교를 마쳤다.



유영섭 원로목사(우측), 서정환 담임목사(좌측) 부부

이어 유영섭 원로목사 추대식이 남부노회장 이재성 목사의 집례와 추대사에서 유 목사는 1992년도에 목사가 되어 그해 7월에 안천교회에 부임한 후 20년 8개월을 목양일념에 힘써 왔다고 한다. 한때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어 엄청난 괴롬과 아픔을 겪는 동안 몸이 많이 늙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안천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광의 순간을 맞기까지 산 증인이면서 안천교회의 첫 번째 원로목사이며, 순장총회로서는 다섯 번째 원로목사이다. 노회장 이재성 목사는 안천교회와 노회가 유영섭 목사를 원로목사로 모시게 된 것을 선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했다. 또한 예총연 이사장 김경희 목사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유영섭 목사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이날 안천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신임 서정환 목사는 본 교단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수학하는 등 24년 동안 한국과 미국 등에서 목회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중부노회장 강 철 목사의 축사, 유영섭 원로목사의 답사가 있은 후 이문순 사모의 특송과 수원시어머니합창단(단장 강정숙)의 축가에 이어서 위용찬 장로가 광고를, 권정희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원로목사 추대와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쳤다.

웨신, 웨민대 제6대 총장 박형용 박사 취임

설립자 라보도 선교사가 세운 성경의 바탕위에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 책임을 다할 것

학교법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한동숙)는 지난 2월 19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본교 2층 소강당에서 박형용 박사가 제6대 총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교무처장 박성환 교수 사회로 총장 박형용 박사의 취임감사예배에서 웨신총회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가 '웨민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박형용 박사를 축하하고 동 대학원대학교가 웨신총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며 본 총회가 지향하는 신학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을 올바로 가르치는 기관이 되고, 이 시대의 유능한 교역자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성숙하고 으뜸가는 선지학교가 되기를 기도' 했다.

이어 예장합신 증경총회장 박병식 목사는 신명기 6:4~9절을 본문으로"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서 박형용 박사의 총장 취임서약과 한동숙 이사장은 박형용 박사를 동 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한 후 총장으로 취임한 박형용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웨민대 총장 박형용 박사



웨민대 한동숙 이사장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총회장 이재갑 목사를 대신하여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가 배석했다.

이날 총장 박형용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해주신 한동숙 이사장, 모든 이사, 관계된 목사, 학교 교직원 등에게 감사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1. 설립자 라보드 선교사는 성경의 바탕위에 개혁주의 전통을 세워 놓은 토대위에 본 신학교는 이를 보존하고 전수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2. 실력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 선교사를 배출하는데 힘쓰며, 학문과 경건, 인격이 겸비한 교회의 리더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대학교는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을 배출할 것이며 상식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4.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전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5. 본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모든 분야에서 강조할 것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선교신학, 상담학, 그 외의 모든 신학분야에서 개혁주의적인말씀 이해와 상반되는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동 대학원대학교가 한국교회의 인정을 받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학교, 강한 학교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총장은 모두가 내 학교라는 의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야 하며, 우리 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위에서 건실하게 성장하는데 열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소신과 함께 신학교를 위해 후원을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로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교 한동숙 이사장(사진)은 격려사를 통해"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린다고 말하고 본 대학교에 입문한지 5개선상이 지났다면서 훌륭한 총장이 오신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동숙 이사장은"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류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세계인류에게는 존경을 받고, 우리 민족에게 자랑스러운 영적 지도자가 웨신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하는 기도를 본 신학대학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기도였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물질에 정직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며 복을 주신다면서 한동숙 이사장은 기도 하나만으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금)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남전도연합회(회장 강신홍 장로) 연합성회 장소: 제천 청풍리조트 ☎(043)640-7006
2(토) 오후	국제총회선교신학교(학장 피종진 목사) ☎(031)968-9191
4(월)~ 7(목)	철원 상노장로교회(최종진 목사) ☎(033)455-6682 주최: 철원관민기도동지회(회장 최종진 목사)
11(월) 오전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043)269-5211
12(화) 저녁	전주 열린문교회(김정호 목사) ☎(063)212-9191
13(수)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상길 목사) ☎(031)947-0091 주최: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14(목) 오후	세계성령부흥사연수원(원장 소강석 목사) 장소: 한국기독교성령센터 ☎(02)474-7801
14(목)~16(토)	수원 주님의교회(윤수정 목사) ☎(031)221-0645
17(주)~20(수)	서울 면목중앙교회(유광석 목사) ☎(02)435-2968
21(목) 오전	해외참전군목회(대회장 유근호 목사) ☎ 017-277-4806 장소: 용산군인호텔
22(금) 저녁	판교 충성교회(윤여풍 목사) ☎(031)600-0300
23(토)~24(주)	일본(JAPAN) 오사카 New Life Center (대회장 박승희 목사)
25(월) 오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3900-8240
25(월) 오후	서울 화곡동축복교회(김인애 목사) ☎ 010-7700-9695
25(월)~30(토)	부산 감림산기도원(원장 이옥란 목사) ☎(055)375-0831
30(토)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신학동문회의 날 (Homecoming Day)

날짜: 2013년 3월 19일(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본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합니다
졸업하신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동문들과 후배들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귀한 사진을 가져오시면 문회와 학교의 역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11:30-12:00 준비와 인사의 시간
12:00-13:00 경건회(동문주최)
13:00-14:00 만찬(스카이라운지)
14:00-15:30 특강
15:30-16:00 총장님과 함께
16:00-17:00 동문들과의 만남과 사진촬영

Vgst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
총 장 박형용 박사
주소 : (446-9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1-11(초당역 앞)
문의 : 웨신총회 02-835-2606, 총무 : 010-8602-3009 http://www.wgst.ac.kr